

‘학원에 인분투척’ 범인은 중학생

일주일여만에 재범행...CCTV보며 지키던 건물주에 덜미

‘촉법소년’...부모 동행하에 추후 정확한 사건경위 조사

광주의 한 학원건물에 인분을 뿌린 중학생이 사건 일주일여만에 똑같은 짓을 하다 건물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8일 건물 화장실에 인분을 2차례 뿌린 혐의(간조물 침입·재물손괴 등)로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7일 오후 8~10시 남구 모 지역 3층건물 화장실 곳곳

에 인분을 뿌린데 이어 지난 24일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분은 2층 여자화장실과 3층 공용화장실 내부 벽, 세면대, 바닥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공동현관이 개방돼 있는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 자신의 인분을 화장실 곳곳에 칠하거나 뿌린 것으로 조사

됐다.

뿌려진 인분은 건물주가 직접 채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 건물에 오물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수사 초기 동물의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인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층의 학원이 운영을 하

지 않는 시간대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의도적으로 누군가 이같은 짓을 했을 것으로 보고 CCTV를 확보해 A군을 특정했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는 사이 A군은 첫 인분 투척 이후 일주일여만에 같은 짓을 했으며 CCTV를 보며 지키고 있던 건물주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동행하에 조사할 수 있다”며 “부모와 조사 시기를 조율하고 있고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범행 이유 등에 대해 파악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대기업에 취업시켜줄게” 2000만원 챙긴 60대

전북 완주경찰서는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쟁점 혐의(사기)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B(30대)씨에게 “완주산업단지 내 한 대기업에 취업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며 2000만원을 받아 쟁점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고 B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는 평소 지역 사회에서 인맥이 두터웠던 A씨를 믿고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인산 반도체 공장 40대 작업자, 기계에 끼여 사망

경기 안산의 반도체 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프레스 기계에 끼여 숨졌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20분경 안산시 성곡동 반도체 조립공장에서 작업자 A(41)씨가 프레스 기계에 머리가 끼었다. 동료들이 이를 목격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A씨는 공장의 자동화 설비 관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관리자와 주변 작업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내연녀 살해한 50대 중국동포 긴급체포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A씨(중국 국적)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주거지인 처인구 한 원룸에서 내연관계였던 40대 B씨(여·중국 국적)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최근 행적과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27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주거지 인근 하천 등에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교회서 잠자던 신도 둔기로 살해한 40대 영장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회에서 둔기를 휘둘러 신도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 40분경 군산시 구암동의 한 교회에서 50대 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옆에 있던 다른 신도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이 교회에는 A씨 등 3명과 목사가 함께 있었다. 신도들은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현병 등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왕서 광주까지 택시 무임승차 5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한 혐의(사기)로 A(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39분경 경기 의왕에서 탑승한 택시를 타고 광주 서구 풍암동까지 이동한 뒤 요금 28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탑승했으며, 애당초 택시 요금으로 낼만 한 돈이 수중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끊긴 가운데 광주에 오면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무작정 택시를 타고 광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대 표지석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 입건

바닥 떨어진 물건 줍다가 낸 사고라 진술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육군 상무대 옛터를 일리는 비석을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20분경 광주 서구 차평동 광주도시공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용 교통선에 설치돼있던 ‘상무대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사고 직후 표석을 떠받치는 토사·석재가 무너졌고, 폭우가 잇따르면서 표석은 인근 화단으로 쓰러진 상태다.

A씨는 경찰에 ‘운전 중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낸 사고였다. 병원에 가려고 현장에서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음주운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표석은 쓰러진 채 닷새째 방치돼있다가, 방수천막을 덮어 장마가 끝난 뒤 복구하기로 했다.

해당 표석은 1952년 1월 ‘상무



대(尙武臺) 창설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필로 쓰여진 비석이다. 서선욱 기자

“내가 친구냐” 10대

제자 폭행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친 10대 학원 수강생을 폭행한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 등의 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중상자 등의 아동학대 기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3월29일 오후 9시10분경 지역 모 학원 복도에서 육설을 하며 학원 수강생 B(14)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와 가슴을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B군이 자신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화가 나 ‘내가 네 친구냐’며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A씨가 순간적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군을 여러 차례 때렸는 바”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 뒤 B군 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원을 그만뒀지만, 이후 B군이 학원을 그만두자 다시 해당 학원에서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여수 하멜등대 앞 해상서 급유선...어선 ‘충돌’

기름 유출 없어

28일 정오경 전남 여수시 종화동 하멜등대 앞 해상에서 부산선적 급유선 A(323t·승선원 6명)호와 여수선적 어선 B(9.77t·승선원 5명)호가 충돌해 어선이 일부 파손됐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선은 충돌 직후 선체 일부가 파손되면서 기관실 및 어장이 침수됐다.

급유선은 충돌로 인해 선원 1명이 두통을 호소했으나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배수펌프를 동원해 배수 작업을 실시했으며 두 선박을 인근 조선소로 이동시켰다.

A호와 B호는 각각 250t, 5t의



28일 정오경 전남 여수시 종화동 하멜등대 앞 해상에서 부산선적 급유선 A(323t)호와 여수선적 어선 B(9.77t) 호가 충돌해 어선이 일부파손 됐다.

기름을 적재 중이었으나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두 선박 선장들 모두 음주 운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 해경은 충돌한 선박의 선장 등을 상대로 항법 관계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